



11 공안(公案)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교육용 방편을 '공안(公案)'이라고 합니다. 공안은 스승이나 조실이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해 제시하는 일단의 속제·과제 혹은 풀어야 할 관문입니다.

원래 공안(公案)이라는 말은 '공부(公府, 관청)의 안독(案牘, 공문서)'에서 '공(公)'과 '안(案)'만 따온 말입니다. 그 뜻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칙으로 삼아야 할 공식적인 지침서라는 뜻의 행정용어로 '국가의 법령'이나 '관공서의 공문(업무처리 규칙)' '법원의 판례' 등 관청의 문서를 뜻합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판례는 공무원이라면 지우고하를

'깨달음의 문' 열기 위한 관문

그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일구 월심 참구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회의심이 생긴다면 그 공안(화두)은 더 이상 공안으로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신(神)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듯 화두 역시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참구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조주나 운문 선사의 고사(故事)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부처(진리)냐"고 질문하자 그들은 논리적인 대답 대신 "마른 똥막대기다(乾屎)" "삼세근(麻三斤)이다" 또는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사실 부처나 진리에 대한 모독적인 말로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궤변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깨달음을 체득한 저명한 선승들이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리 있을까요? 수행자들을 데리고 할 일 없이 재기 발랄한 농담이나 했을까요? 의

인구 등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인연설화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오도(悟道)의 역사적 사실로 정착되고, 또 권위와 절대성이 부여되면서 하나의 진리처럼 발전한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 이라서 언뜻 보면 콩트나 픽션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한 토막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선의 정신과 사상, 교리적 바탕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안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선(禪)의 정신과 선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기이한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선의 논리에서 볼 때 선승들이 주고받는 선문답은 빈틈없는 일정한 기준과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空)·무(無)·중도(中道)·무분별(無分別)·무차별(無差別)·불이(不二, 즉 -)·일체유심조(관념 타파 용도)·무아(無我)·무심(無心, 무번뇌심)·무사(無事, 무번뇌사)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안을 비롯한 선문답·선시·오도송·법거랑 등 모든 선어는 여기(공·무·무차별)에 맞아야 하고,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문답도 법거랑도 오도송도 아닙니다.

공안(話頭)은 모두 1700가지나 됩니다. 이것은 선의 역사서 <선등록>에 실려 있는 선문답의 숫자가 모두 1701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구하는 공안(화두)은 '무(無)' '간시굴(乾屎橛)' 등 약 7-8개가 됩니다.

■윤창희 민족사 대표

절대적 믿음·권위 뒷받침돼야 '공안의 위력' 발휘 공안에 대한 권위는 참구하는 자 스스로 부여해야

막론하고 당연히 염수해야 할 준칙으로서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잃게 되고 부정이 짙게 됩니다. 또한 기타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정해진 법령이나 수시로 내려 보내는 공문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법령을 준칙으로 삼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도 공안을 준칙으로 삼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법령(공안, 화두)만 잘 따른다면(참구) 아무 할 없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안은 무엇보다도 권위와 신뢰성, 절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공안을 참구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공안으로서 믿음과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수행자에게 그 공안은

미 없는 동문서답이나 늘어놓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질문자로 하여금 관념을 타파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말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화두나 공안은 모두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만, 그 말이 진리라는 정도의 절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00년을 참구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성이 유지될 때만 깨달음을 체득하는 공안으로서 유효한 것만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깨달음을 얻은 옛 선승들의 언행이나 선문답(법거랑, 대화)이 훗날 공안이 된 것입니다. 저명한 선승과 선승 또는 선승과 수행자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이나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오온의 공함'을 깨닫다

11 빠따짜라

'지계제일' 비구니인 빠따짜라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와 액을 넘어섰다(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고 하는 <반야심경>의 관법(觀見: 유희사나리로 해탈할 아라한이다).

사위성에 사는 부호 상인의 딸이었던 빠따짜라는 성장한 후 머슴과 눈이 맞아 틀레 도망쳐서 인적이 뜰 마을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 그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갖게 되었다. 해산날이 다가와 정진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여행 도중에 큰 태풍이 불었다. 남편은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재목과 풀을 구하려고 숲으로 나갔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그녀는 두 아이를 깨고 양바닥에 간신히 엎드려 받을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위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강이 가로 놓여 있었다. 물이 깊어서 그녀는 갓 난이기를 강기슭 풀 위에 놓고 큰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다. 중간쯤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갓난아기를 채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라 아이를 강물 속에 떨어뜨렸고, 그 아이는 급류 속에 휩쓸려 버렸다. 홀지에 남편과 두 아이를 잃은 그녀가 간신히 사위성에 당도해 보니, 친정집은 태풍이 불던 저녁에 무너지고 불이 나서 온 식구가 깔리고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미쳐버린 그녀는 정처 없이 걸어다녔기에 속옷마저도 갈갈이 찢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빠따짜라(천 조각을 갈고 걷는 여자)'라고 불렀고, 절에 열선도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기원정사에 이르렀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막았지만,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다 멀찌기 빠따짜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법화에 오게끔 하셨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오."

그러자 그녀는 차마를 입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떤 사람이 천을 한 장 주어 그것을 두르고 나자, 부처님께서 "번

거 죽은 사람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라"는 법문을 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녀는 순식간에 수다 원과를 얻었다.

마침내 비구니가 된 그녀는 어느 날, 밭을 짓고 있다가 세 번이나 물이 멀리 튀어 가거나 가까이 방울져 떨어짐을 보고 사람도 어려서 죽든, 중년이나 노년이나 죽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물이 생기고 사라지듯 생멸(生滅)하는 것이 중생의 생사(生死)임을 명확하게 알았다.

이때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천안통으로 보시고 광명을 보내어 그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말씀하셨다.

"빠따짜라여, 너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너는 다섯 감각의 범주(五蘊)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감각의 범주들이 영원치 않으며, 불안정하고, 허찮은 것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백년을 산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설법이 끝나자 그녀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법구경>과 <장로니 계송>에 전하고 있다. 수행자가 색(色: 물질) 수(受: 감수작용) 상(想: 표상작용) 행(行: 의지와 욕구 등 정신작용) 식(識: 인식작용) 등 오온에 대한 정견이 없으면 보이는 현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나의 것으로 집착하여 괴로움에 빠진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오온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는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행위를 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을 쌓아간다.

그러나 수행자가 매순간 오온의 생멸을 바르게 관찰하고, 오온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알면 실재하지 않는 '거짓 나'에 묶이지 않고, 오온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불설오온개공경>에서 부처님은 "나의 제자라면 이 5온을 관찰하여 '나'와 '내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하고 나면 곧 세간에 취하는 주체(能取)도 취할 대상(所取)도 없으며, 또한 전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스스로 깨달아 열반을 증득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김성우 객원기자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중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중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중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리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의 : 총무원 054)632-2799
-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해삼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람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원명명서 종원명명서란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임의로 행하여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찰명명서 사찰명명서란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임의로 행하여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	---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화제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신행계시판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양산 통도사가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4월 12일 일요일 12일 회향하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는 해남 스님을 전계사로 2박3일간 이어진다. (055)382-7182

●**해인사 (지장경) 강설 대법회**-해인사 3월 22일 오후 3시 제2회 (지장경) 강설 대법회를 봉행한다. 보경당에서 열리는 (지장경) 강설 대법회는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55)834-3000

●**계기 초보자를 위한 성인 영어 담마스크** 강-서울 비르자·국제선원들이 성인 대상으로 불교와 일반영어회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계기 초보자를 위한 성인 영어 담마스크를 개강한다. 4월 1일~5월 23일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전 12시 30분 월요일 오후 7시(저녁) 강의가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3월 27일 (02)6012-1731

●**국제선원 무상사 일요참선법회**-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가 매주 일요일 참선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조실 대봉 스님과 주지 무심 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수습을 할 수 있다. 오후 1시 30분~2시 40분 참선을 하고 3~4시 영어 법문이 이어진다. (042)841-6084

●**경도회 100일 출가** 경도회 100일 출가가 3월 24일 일요일이다. 100일 출가는 ▲나를 바꾸는 수련-깨달음, 일체 나눔, 집중수련, 사찰순례 ▲일과 수행 그 이터디온 조화-민배장진, 새벽예불, 발우공양, 철화기도, 포살법회, 수행공동체 생활.

일 수행 마음 나누기 ▲불교사상강좌 (금강경, 연가심경) (육조단경, 실존적 불교사상 등 정도 불교대학 강좌 ▲특별수련-법문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순례, 불교대학 특강수련 ▲NGO 실무실습 (재정정보, 재평화재단, (S)JTS, (사)좋은벗들, (사)에코부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4)671-6031

●**위빠새나 수행처 보리수선원 이진법회**-서울 보리수선원이 3월 22일 오후 3시 이진법회를 개최한다. 압구정동 인근으로 이전에 현재 집중수행과 정기 수행자를 위한 일일용 방을 증축 중이다. 이진법회에서는 우 치킨 사야도, 테리도 스님들 12명의 법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전통주사는 본래는 연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신 유식학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김미리 옮김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나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세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전·생활속 수행과 哲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呼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환곡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